

## 젠더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일자리 위기와 정책 대응 과제

작성자 : 김원정 부연구위원(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)

### 들어가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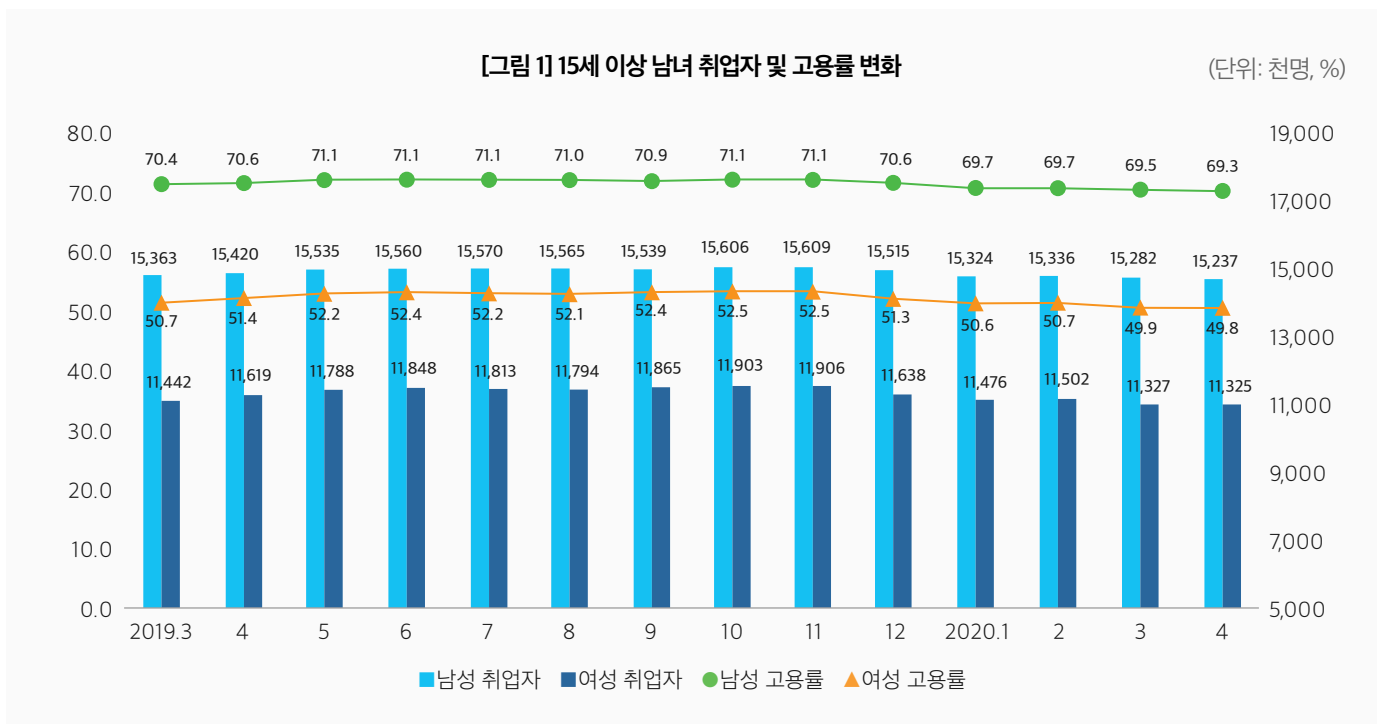
- UN 등 국제기구는 코로나19의 사회·경제적 영향을 젠더 관점에서 진단하고, 재난이 여성에게 초래한 피해의 회복과 성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성인지적 정책 대응을 강조하고 있음
  - UN(2020), 팬데믹 상황이 기존에 젠더 불평등이 존재했던 영역의 성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어, 젠더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단기적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인 회복 정책에도 젠더 관점 반영해야
  - OECD(2020),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모든 정책 대응은 젠더 렌즈를 포함해야 하며, 여성의 특유한 욕구, 책임, 관점을 반영해야
- 현재 우리사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여성이 먼저 경험하고 있으며, 이는 기존의 성별화된 이중노동시장 구조와 성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
  - 코로나19로 인해 숙박음식점업,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 접촉 기반 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으면서 이들 산업에 집중되어 있던 여성 일자리가 먼저 위기에 처했고, 특히 단순노무직, 임시·일용직, 영세사업장 등 보다 취약한 지위에 있던 여성들이 일자리 위기를 더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음
  - 또한 코로나19 이후 공적 돌봄 지원이 중단되어 아동, 노인, 장애인 돌봄이 다시 가족화되면서, 늘어난 돌봄 부담은 여성의 취업 지속을 어렵게 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음
  -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내 지위 격차가 확대되고 여성의 일·가족 이중 부담과 경력단절이 심화되어, 그동안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성평등한 일·가족 양립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 성과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큼

- 이 글은 2020년 4월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위기를 젠더 관점에서 살펴보고,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는 성인지적 정책의 방향과 단기·중기·장기 과제를 제안함
- 성인지적 정책 대응 과제는 고용·소득 위기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, 코로나19로 드러난 성별화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보다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표 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

## 젠더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위기

### 어떤 일자리가 사라졌나

- 코로나19 이후 취업자 감소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더 큰 폭으로 나타나
  - 2020년 4월 현재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는 모두 2,656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 6천명 감소하였음
  - 성별로 보면 여성은 전년동월대비 29만 3천명 감소하고, 남성은 18만 3천명 감소하여, 3월에 이어 여성의 감소폭이 더 크게 확대됨(3월 여성 -11만 5천명, 남성 -8만 1천명)
  - 고용률은 59.4%로 전년동월대비 1.4%p 하락하였고, 성별로 보면 여성 고용률은 1.6%p(51.4% → 49.8%), 남성이 1.3%p(70.6% → 69.3%) 감소함

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

[표 1] 15세 이상 남녀 취업자 및 고용률 변화

(단위: 천명, %, 전년동월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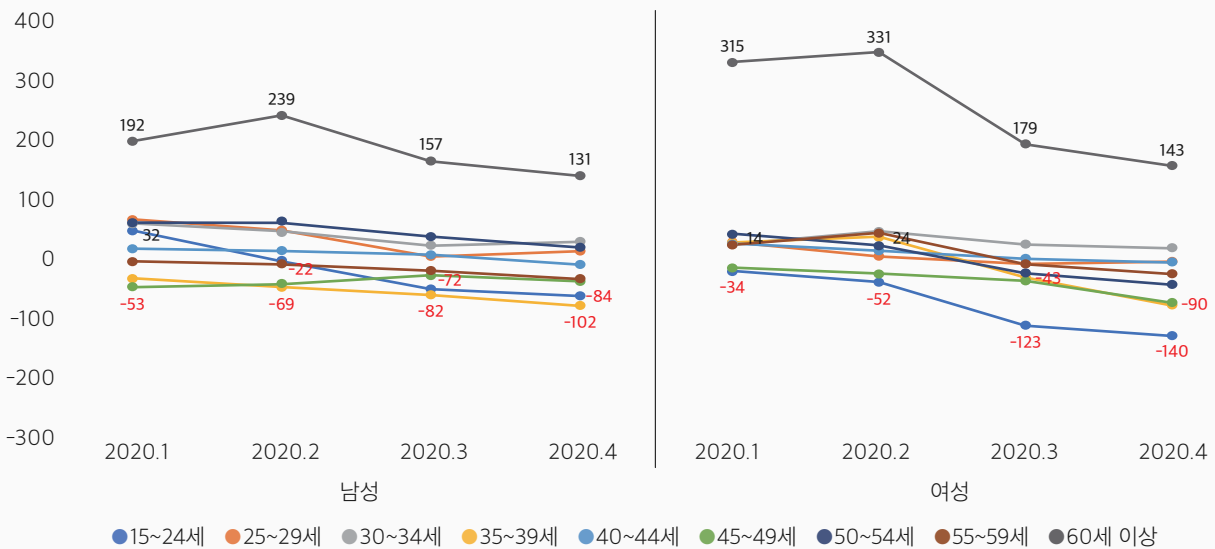
	'19.4	'20.1	'20.2	'20.3	'20.4	
		증감	증감	증감		증감
취업자	27,038	568	492	-195	26,562	-476
남성	15,420	224	162	-81	15,237	-183
여성	11,619	344	330	-115	11,325	-293
고용률	60.8	0.8	0.6	-0.9	59.4	-1.4
남성	70.6	0.4	0.2	-0.9	69.3	-1.3
여성	51.4	1.2	1.2	-0.8	49.8	-1.6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.

- 연령별로는 코로나19 이후 고령 취업자(60세 이상) 증가세가 둔화되고 청년(15~24세)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는 여성에서 더 두드러짐. 35~39세 여성 감소폭도 커 돌봄 부담 증가로 취업을 중단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
- 4월 현재 60세 이상 전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7만 4천명 증가했지만, 2020년 1~4월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3, 4월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세는 큰 폭으로 둔화되었음. 또한 취업자 감소폭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15~24세와 35~39세에서 가장 크게 확대됨

[그림 2] 연령별 남녀 취업자 증감 추이

(전년동월대비, 단위: 천명)

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.

- 성별로 보면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([그림 2]). 60세 이상 여성은 남성보다 증가폭이 더 줄어들었음. 15~24세도 크게 감소하고(3월 -12만 3천명, 4월 -14만명), 35~39세 취업자는 증가 추세였다가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로 전환됨

- 이는 해당 연령대에서 여성다수 업종 및 취약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든 결과이자 자녀 돌봄 책임이 있는 여성의 취업 중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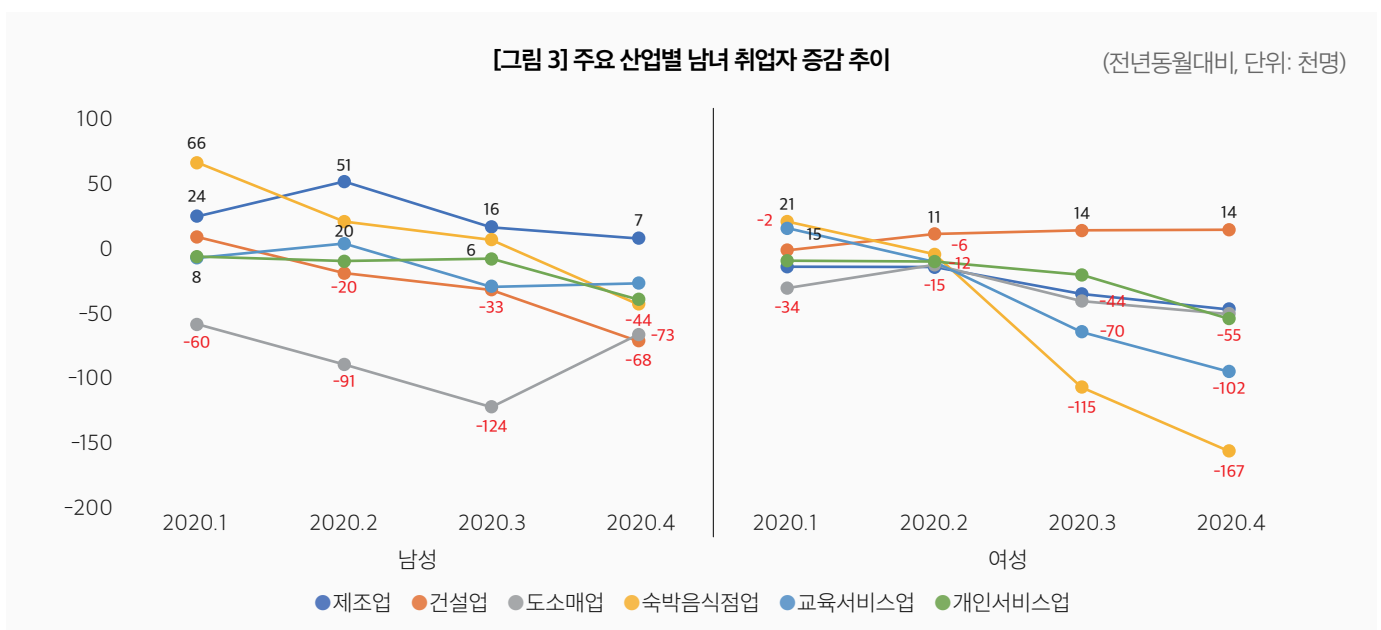
- 15~24세 취업자 감소는 주로 숙박음식점, 도소매, 예술·스포츠·여가관련 산업에서, 직종으로는 서비스·판매직, 종사상 지위로는 임시직에서 감소폭이 가장 커, 주로 음식점과 상점, PC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그만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
- 60세 이상 취업자는 공공행정 분야에서 감소폭이 크고 보건복지업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. 또 직종으로는 단순노무직, 종사상 지위로는 임시·일용직에서 감소폭이 가장 커, 노인 공공 일자리 사업과 요양보호 등 돌봄서비스 중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
- 자녀 양육 부담이 집중된 35~39세 여성 취업자는 코로나 이후 감소 전환하여 4월 감소폭이 더 확대됨(-9만명, 3월 -4만 3천명)

※ 35~39세 미혼 여성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천명 증가한 반면(28만 1천명 → 28만 9천명), 같은 연령대 유배우 여성은 11만명 감소하여(86만 6천명 → 75만 6천명), 자녀 돌봄 부담이 30대 중반 여성의 취업 중단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

-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 일자리 위기는 숙박음식점, 교육서비스 등 대면 접촉이 많은 여성집중업종에서 먼저 발생하여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건설업, 개인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으로도 확대되고 있음

- 전년동월대비 4월 현재 전체 취업자 수는 숙박음식점(-21만 2천명), 교육서비스(-13만명), 도소매(-12만 3천명)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, 그 중 숙박음식점(3월 -10만 9천명)과 교육서비스(3월 -10만명)는 3월보다 감소폭이 더 확대되고, 도소매업은 감소폭이 줄어듬(3월 -16만 8천명)

- 이들은 모두 여성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2월 기준 여성 취업자 비중은 숙박음식점 61.3%, 교육서비스 66.5%, 도소매 46%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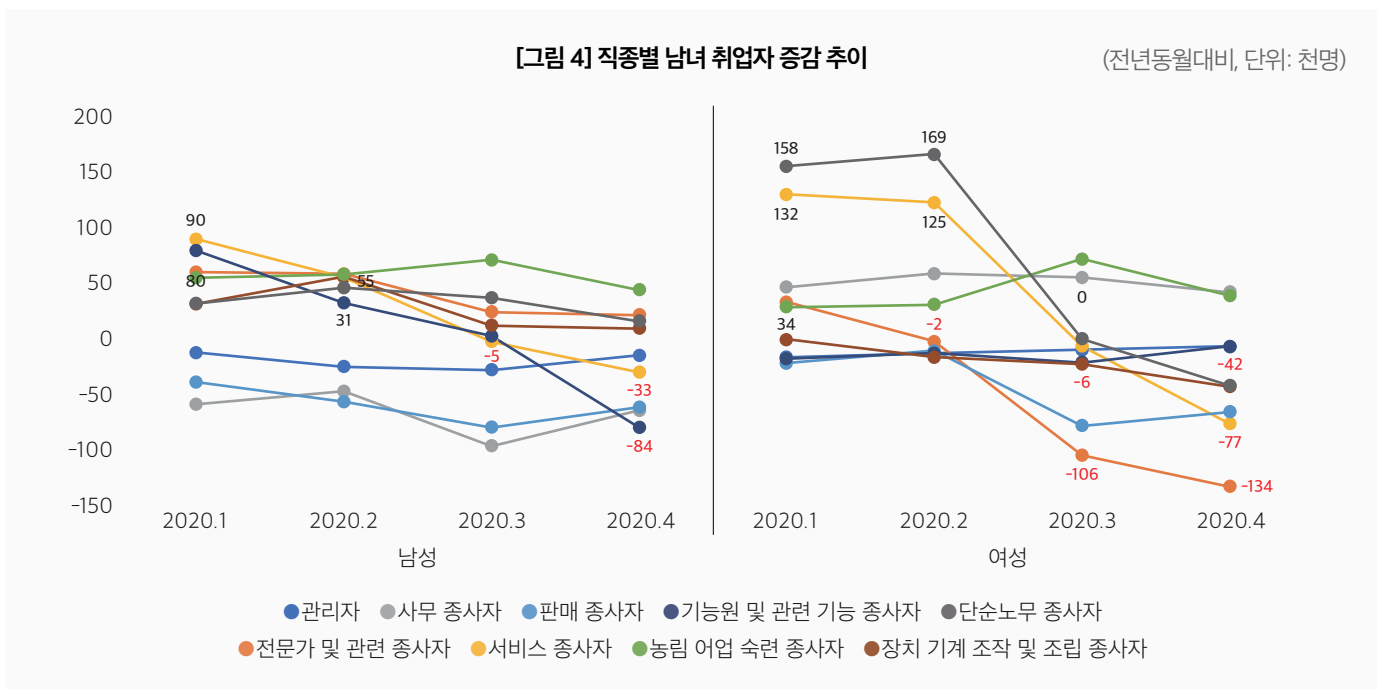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

- 성별로 보면 여성은 숙박음식점(3월 -11만 5천명, 4월 -16만 7천명), 교육서비스업(3월 -7만명, 4월 -10만 2천명)에서 감소세가 크게 확대되고, 도소매업, 개인서비스업, 제조업에서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, 남성은 숙박음식점(3월 6천명, 4월 -4만 4천명), 건설업(3월 -3만 3천명, 4월 -7만 3천명), 개인서비스업(3월 -9천명, 4월 -4만 1천명) 등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거나 감소 전환됨(그림 3)

- 도소매업 감소폭 완화는 온라인 판매업의 활성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, 여성(3월 -4만 4천명, 4월 -5만 5천명)보다는 남성(3월 -12만 4천명, 4월 -6만 8천명)에서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남

- 직종별로 보면 여성은 단순노무직, 서비스직과 전문직 취업자의 감소폭이 큼. 여성 중에서도 저숙련 노동자가 충격을 먼저 받고, 교육서비스, 보건복지 분야 여성집중 직종의 전문직이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

- 전년동월대비 4월 현재 취업자 수는 판매직(-13만 2천명), 서비스직(-11만명), 전문직(-11만 4천명), 기능원(-9만 1천명)에서 크게 감소함. 이중 전문가(3월 -8만 3천명), 서비스직(3월 -1만 1천명), 기능원(3월 -2만 1천명)은 3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고, 단순노무직은 감소 전환됨(3월 3만 6천명, 4월 -2만 8천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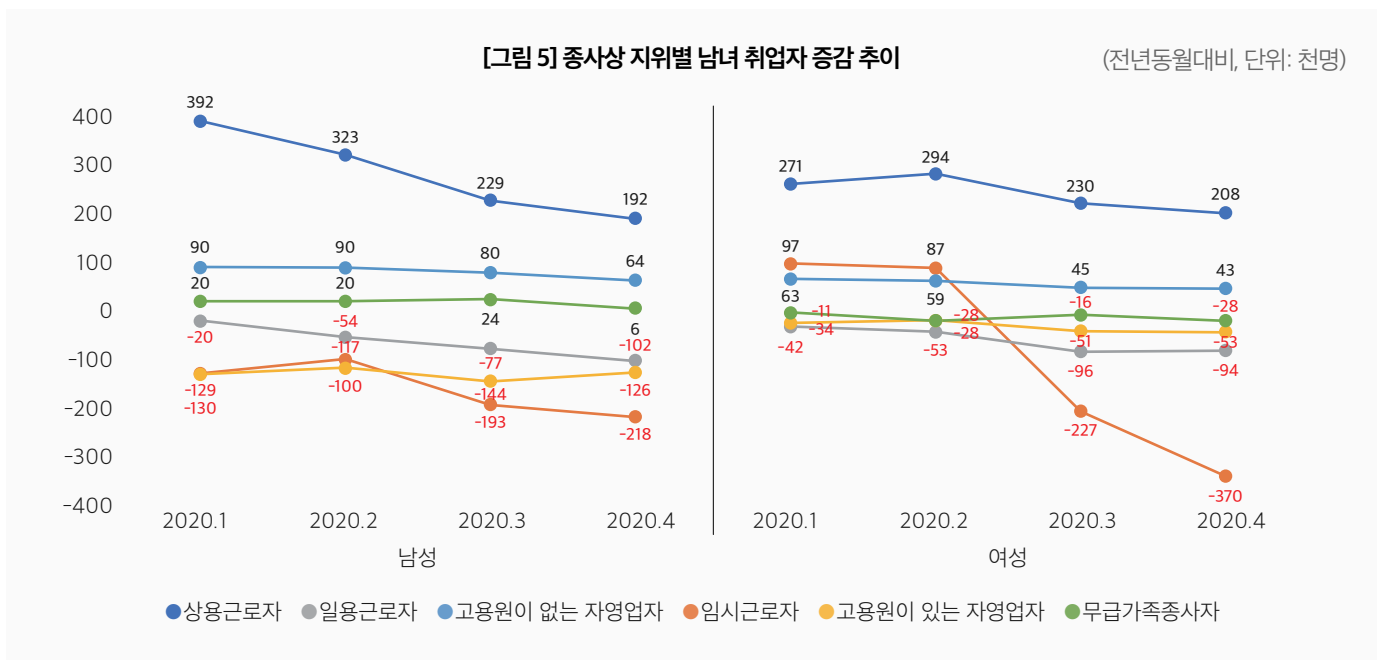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.

-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판매직 감소세는 4월 들어 다소 완화되었으나 다른 직종의 증감 추이에서는 큰 차이를 보임. 여성은 서비스직(3월 -6만명, 4월 -7만 7천명), 단순노무직(3월 0명, 4월 -4만 2천명), 전문가(3월 -10만 6천명, 4월 -13만 4천명)에서 감소폭이 커졌고, 남성은 기능원(3월 1천명, 4월 -8만 4천명), 서비스직(3월 -5천명, 4월 -3만 3천명)에서 감소 폭이 확대됨(그림 4)

- 전년대비 줄어든 여성 서비스직 일자리는 대부분 숙박음식점업(3월 -7만 5천명, 4월 -12만 명)이며, 단순노무직은 개인서비스(3월 -4만 1천명, 4월 -4만 2천명), 숙박음식점(3월 4천명, 4월 -2만 5천명)에서 크게 감소하고, 보건복지, 공공행정에서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 전환됨. 후자는 주로 60세 이상 일자리 감소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
- 줄어든 여성 전문직 일자리는 대부분 교육서비스업(3월 -7만명, 4월 -11만 4천명), 보건복지업(3월 -5만 1천명, 4월 -3만 9천명) 종사자로, 학원 강사, 방과후교사나 요양보호사 등 여성이 다수인 전문직·준전문직 일자리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

-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코로나19 이후 임시직, 특히 여성 임시직 취업자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됨.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취약 노동자 중에서도 여성이, 여성 중에서도 취약 노동자가 일자리 위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음을 보여줌

- 전년동월대비 4월 현재 취업자 수는 임시직(-58만 7천명), 일용직(-19만 5천명),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(-17만 9천명)에서 크게 감소하였고, 임시직(3월 -42만명), 일용직(3월 -17만 3천명)은 3월보다 감소폭이 더 확대됨. 상용직은 전년동월대비 40만명,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만 7천명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감소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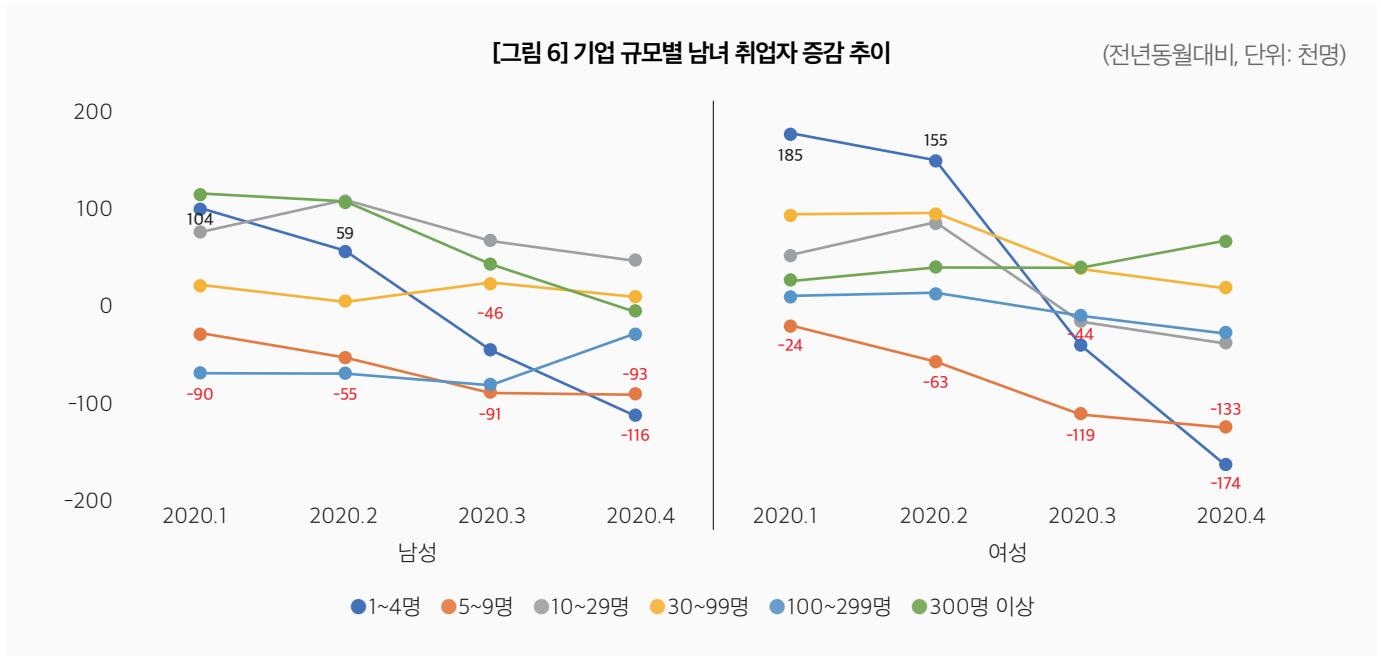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

- 성별로 보면 임시직 감소폭은 여성에서 매우 크게 확대되었으며(3월 -22만 7천명, 4월 -37만명), 상용직은 남녀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남성의 증가폭이 더 줄어들었음([그림 5])

- 여성 임시직은 주로 숙박음식점(3월 -5만 6천명, 4월 -10만 8천명), 도소매업(3월 -4만 8천명, 4월 -7만 7천명), 개인서비스(3월 -4만 3천명, 4월 -4만 7천명), 교육서비스(3월 -1만 9천명, 4월 -4만 5천명)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여,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산업 내에서도 여성 취약 노동자가 먼저 위기를 겪은 것으로 보임

-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-4인, 5-9인 기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여성에서 더욱 두드러짐. 일자리를 잃은 이들의 상당수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했을 가능성이 크며 여성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임
- 전년동월대비 4월 현재 취업자 수는 1-4인 사업장(-29만명)과 5-9인 사업장(-22만 6천명)에서 크게 감소하였고, 특히 1-4인 사업장은 3월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됨(3월 -9만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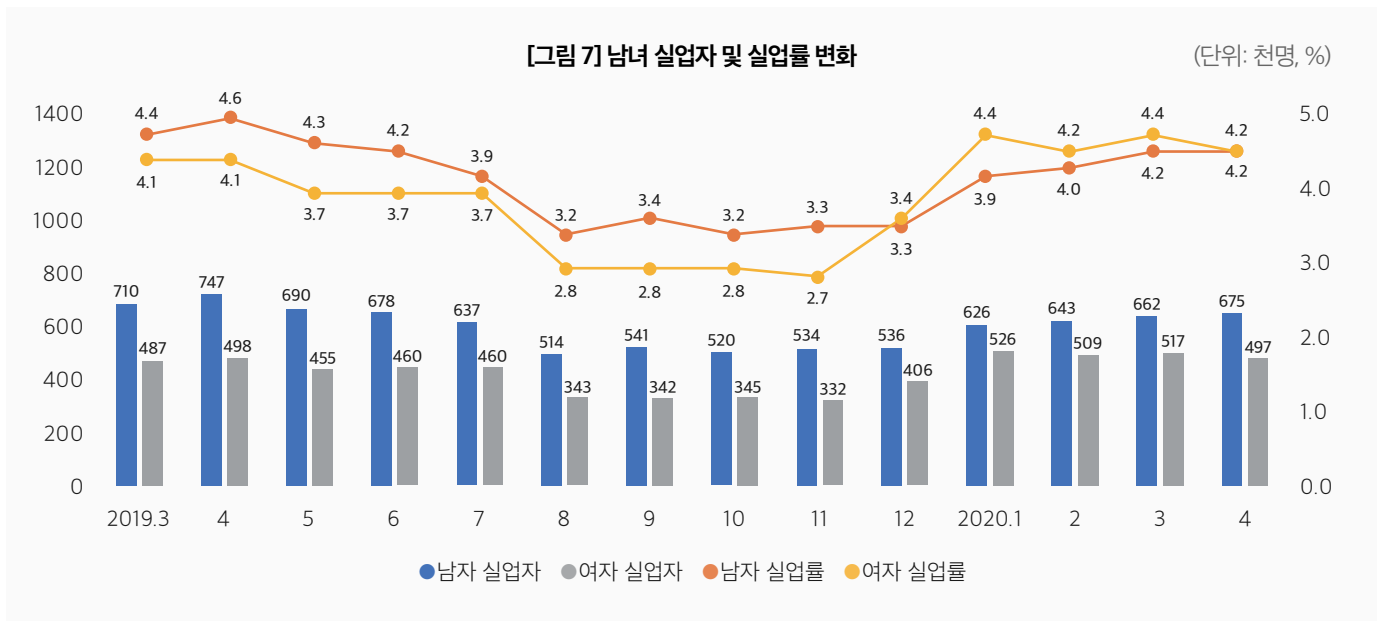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.

- 성별로 보면 1-4인 사업장 취업자 감소폭은 여성에서 매우 크게 확대되었으며(3월 -4만 4천명, 4월 -17만 4천명) 여성 취업자의 5-9인 사업장 감소폭도 확대되었음(3월 -11만 9천, 4월 -13만 3천)(그림 6)
- 한편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의 경우, 남성은 증가세가 둔화되다 4월 감소 전환된 데 반해, 여성은 소폭 증가세가 유지됨. 그만큼 여성 중에서도 영세사업장의 취약 노동자가 고용 위기의 충격을 흡수했을 가능성이 큼

### ④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

- 취업자 감소에도 4월 실업자는 전년대비 감소하고 실업률도 하락하였음. 여성 실업자도 3월에 전년대비 3만 1천명 증가했으나 4월에는 1천명이 감소하여 구직활동의 어려움을 반영
- 2020년 4월 현재 실업자는 모두 11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3천명 감소하고 실업률은 4.2%로 0.2%p 하락하였음
- 성별로 보면 여성은 49만 7천명으로 1천명 감소하고(실업률 4.2%, 0.1%p 상승), 남성은 67만 5천명으로 7만 2천명 감소함(실업률 4.2%, 0.4%p 하락). 남성 실업자는 감소세가 지속되고(3월 -4만 8천명), 여성은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됨(3월 3만 1천명)(그림 7)

- 취업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감소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, 기업 채용 감소 등으로 구직활동을 중단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임

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.

**[표 2] 남녀 실업자 및 실업률 변화** (단위: 천명, %p, 전년동월대비)

	'19.4	'20.1	'20.2	'20.3	'20.4	
		증감	증감	증감		증감
실업자	1,245	-71	-150	-17	1,172	-73
남성	747	-67	-76	-48	675	-72
여성	498	-4	-74	31	497	-1
실업률	4.4	-0.4	-0.6	-0.1	4.2	-0.2
남성	4.6	-0.5	-0.5	-0.2	4.2	-0.4
여성	4.1	-0.1	-0.8	0.3	4.2	0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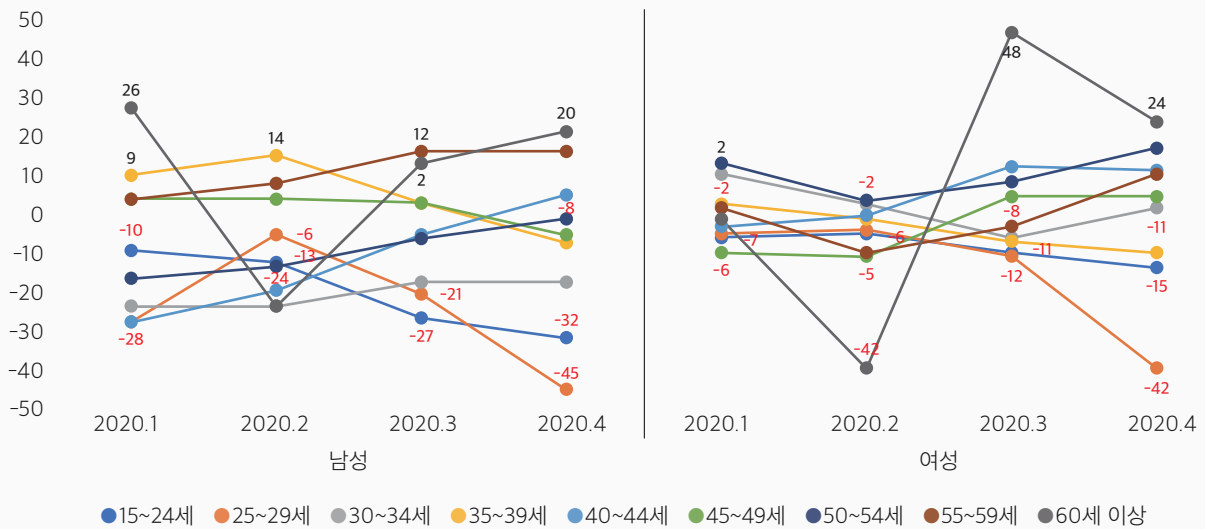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.

- 연령별로 보면 실업자는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다음으로 50대와 40대에서 증가한 반면, 25~29세, 15~24세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35~39세도 감소세를 보임. 청년층에서는 신규채용 지연·연기로 인해, 35~39세는 자녀 양육을 위해 구직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됨
- 이러한 경향은 남녀 모두 대체로 유사하나. 여성은 특히 60세 이상 실업자가 3월 큰 폭으로 증가한 후 4월에는 그 폭이 줄어들어(3월 4만 8천명, 4월 2만 4천명), 4월 이후 구직활동을 중단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



[그림 8] 연령별 남녀 실업자 증감 추이

(전년동월대비, 단위: 천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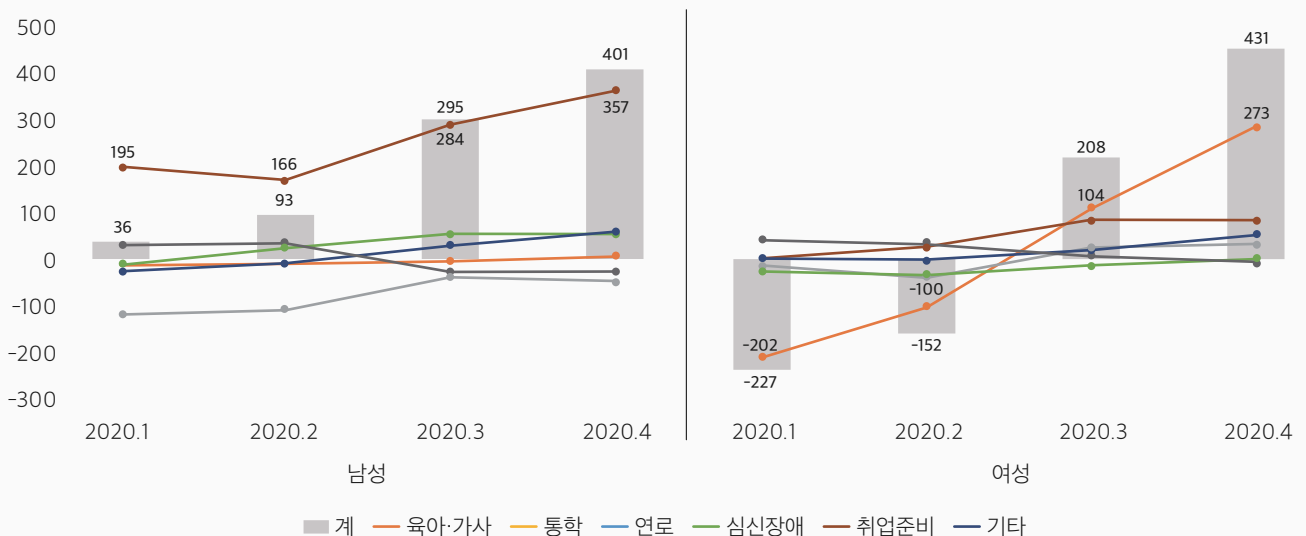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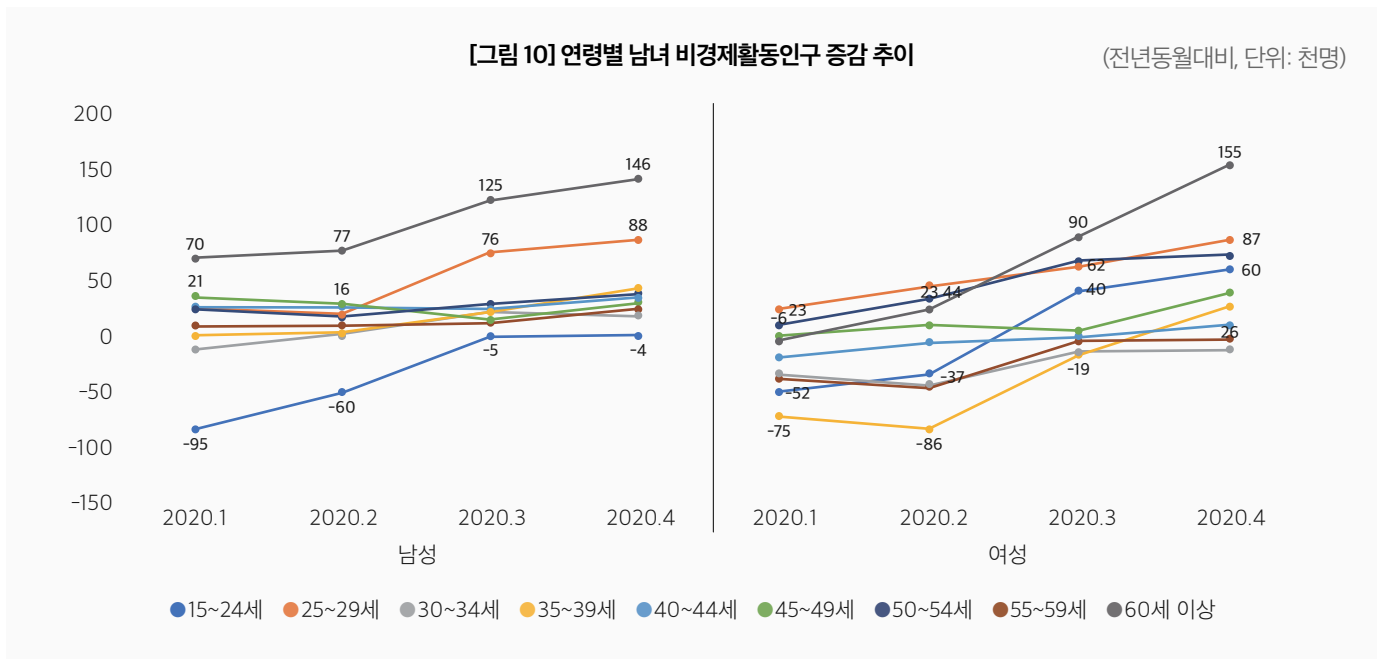
- 2020년 4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대비 83만 1천명 증가함. 꾸준히 감소세에 있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코로나19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, 육아·가사 상태가 많아 노동시장 복귀 지체 시 경력단절로 이어질 우려가 큼
- 2020년 4월 비경제활동인구는 모두 1,699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3만 1천명 증가하였음
- 성별로 보면 여성은 1,090만 2천명으로 43만명 증가하고, 남성은 608만 9천명으로 40만 1천명 증가함. 또 3월과 비교할 때 남녀 모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(3월 여성 22만 1천명, 남성 29만 5천명)

[그림 9] 남녀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별 증감 추이

(전년동월대비, 단위: 천명)



- 성별로 보면 남성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추세가 계속되다 올 3, 4월에 증가폭이 크게 늘어난 반면, 여성은 감소 추세가 지속되던 중 3, 4월에 증가세로 급격히 전환됨
  -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이후 남성은 '쉬었음' 사유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것과 달리(3월 28만 4천명, 4월 35만 7천명), 여성은 감소 추세이던 '육아가사'가 증가 전환되어 큰 폭으로 확대(3월 10만 4천명, 4월 27만 3천명), 코로나19 이후 일을 그만두고 늘어난 가사·돌봄 부담을 감당하는 여성이 늘어났음을 보여줌
-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과 25~29세에서 큰 폭 증가세가 지속되고, 15~24세, 35~39세도 급격히 증가세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임. 앞서 실업자 증감에서 본 바와 같이 청년층의 구직활동 중단, 30대 중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일 중단이 많기 때문으로 보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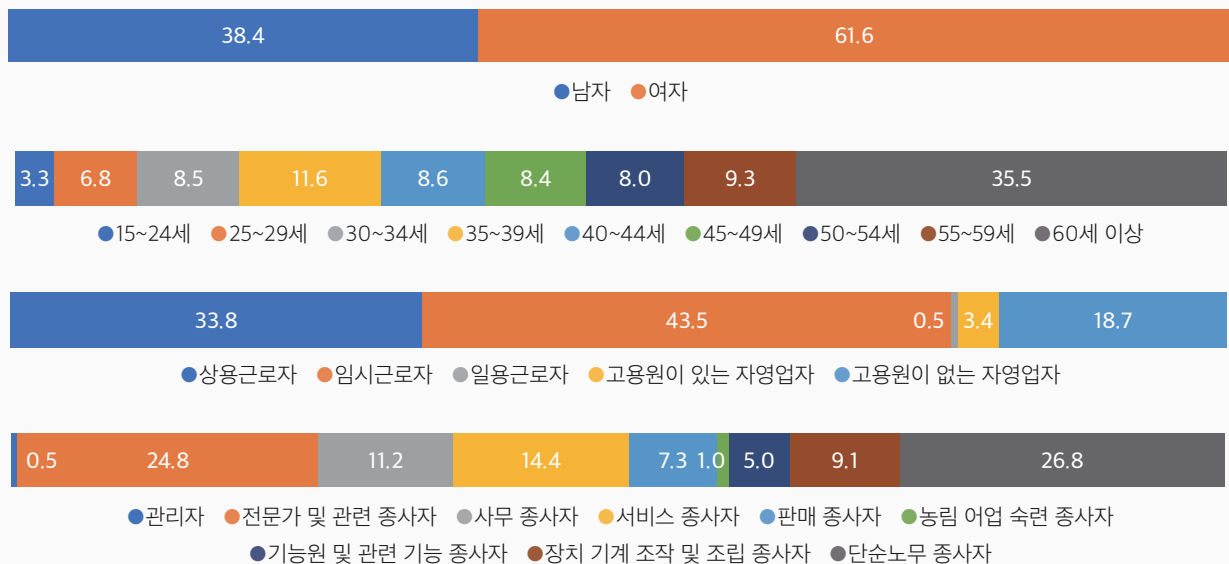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

- 성별로 보면 남성은 60세 이상(3월 12만 5천명, 4월 14만 6천명)과 15~24세(3월 -5천명, 4월 -4천명), 25~29세(3월 7만 6천명, 4월 8만 8천명)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의 증감 폭이 크지 않지만, 여성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증가폭이 확대됨([그림 10])
- 특히 35~39세 남성은 비경제활동인구 변화가 크지 않지만, 여성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세로 전환되어(3월 -1만 9천명, 4월 2만 6천명) 자녀 돌봄 부담이 여성의 일자리 이탈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함

- 4월 현재 148만 5천명에 이르는 일시휴직자의 61.6%가 여성이며 일자리 상실 위험이 높은 임시직, 단순노무직, 60세 이상이 많아, 경기 악화 시 여성의 일자리 위기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큼
  - 2020년 4월 현재 취업자이지만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시휴직자는 148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3만명 증가하였음
  - 일시휴직자 중 여성 비중이 61.6%로 많고 60세 이상이 35.5%(남성 34.2%, 여성 36.4%)이며,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시직이 43.5%(남성 31.5%, 여성 51%), 직종은 단순노무직이 26.8%(남성 21.0%, 여성 30.3%)로 많음
  - 취업 전망이 개선되지 않아 일시휴직자가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다면 그만큼 여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

[그림 11] 2020년 4월 일시휴직자 성별·연령별·종사상지위별·직종별 구성비

(단위: %)

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

- 종합하면, 현재 일자리 위기는 여성집중산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았고, 여성이 다수인 저숙련, 임시·일용직, 영세사업장 등 취약 노동자가 1차적인 일자리 감소의 대상이 됨으로써 성별화된 양상을 띠. 돌봄의 재가족화 또한 여성의 일자리 이탈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
  - 그만큼 현재 위기는 성별화된 이중노동시장 구조와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고착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함. 또 돌봄 부담이 집중된 자녀 양육기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속한 일자리 복귀와 일·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

## 성인지적 일자리 위기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\*

- 코로나19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는 성인지적 정책은 무엇보다 일자리·소득 위기를 먼저 경험한 여성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지원하여 현재의 위기가 노동시장 내 성별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
  - 여성 비정규직 등 일자리 위기의 1차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조정 일시 중단 등 기업의 강력한 책임을 촉구하는 정책이 필요함
  - 여성 등 취약 노동자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생계안정 지원 수단이 보다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지원 예산도 확충되어야 함
  -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의 일자리 상실이 장기적인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기 취업복귀 대책을 실시해야 함
- 단기 피해 회복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성별화된 이중노동시장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취약 노동자를 배제해 온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작업을 추진해야 함
  -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나 다른 감염병의 유행과 같은 재난 상황이 다시 발생할 때 지금과 같은 일자리 위기의 여성화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만큼 단기 회복 지원 정책과 함께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
- 나아가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사회 변화,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이러한 변화가 성별 격차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고, 돌봄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공공성 강화 등 기존에 강조해 온 성평등 정책의 목표를 현실화시키는 적극적인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
  -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의료·돌봄노동이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고 모든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수 조건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, 그동안 주로 여성이 저임금 또는 무급으로 수행해 온 의료·돌봄노동의 질적·양적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
- 이에 아래에서는 성인지적 일자리 위기 대응 정책의 과제를 단기-피해 회복, 중기-노동시장 구조·제도 개선, 장기-성평등 사회 변화를 위한 개입으로 나누어 정리함

\* 이동선·김원정·장은하·김정수·정윤미. 2020. “코로나19의 성별 불평등 현황과 성평등 관점의 정책과제.” in 「코로나19 진행에 따른 경제·사회·산업 총격대응」 경제인문사회연구회(근간)

[표 6] 성인지적 일자리 위기 대응 정책 과제

구분	분야	내용
[단기] 피해 회복	기업 고용유지 지원 정책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비정규직, 간접고용 노동자 포함 방안 마련, 휴업수당 중 사용자 부담 비중 줄이기</li> <li>방문돌봄 제공기관 등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기존 재원으로 휴업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안 검토</li> <li>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규모, 예산 확대</li> <li>숙박음식점업, 보건복지업, 교육서비스업 등 여성집중업종을 특별 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여 고용유지 지원 혜택 확대</li> </ul>
	노동자 생계안정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시적 실업부조, 긴급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수급 요건 미달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 생계지원 대책 마련</li> <li>무급휴직자, 특고·프리랜서, 영세자영업자에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, 절차 간소화 및 예산 확대</li> </ul>
	여성·청년 노동시장 복귀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여성, 특히 청년 여성 적합 취업분야 발굴, 공공 일자리 추가 확충(예. 의료행정·사무, 취약계층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지역사회 소통 지원)</li> <li>코로나19 시기 경력중단 여성 직업훈련·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</li> </ul>
[중기] 구조·제도 개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특고·프리랜서,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 개정</li> <li>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포괄성·보장성 강화</li> <li>요양보호사,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방문돌봄노동자의 안정적 지위 보장 및 처우 개선</li> <li>성평등한 일·가족 양립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</li> </ul>
[장기] 성평등 사회 변화 촉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적 필수 인력으로서 돌봄노동자를 포함한 공적 의료·돌봄체계 확대 개편, 보건의료·돌봄 일자의 대대적 확충</li> <li>보건의료·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 확대, 일자리 안정성 및 노동조건 개선</li> <li>오프라인 매장 등 대면 산업 축소에 따른 일자리 위기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, 여성 판매·서비스직 노동자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는 직업훈련·취업지원 정책 수립</li> </ul>

## 참고자료

UN. 2020.4. Policy brief: The impact of Covid-19 on Women.

OECD. 2020.4. Women at the Core of the Fight against COVID-19 Crisis.